

근심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친절할 말은 마음을 밝게 합니다. 잠언 12:25 – Ted Hildebrand와 Chatgpt의 속담 이야기

메이플브룩의 아침은 잿빛이었다. 이 우울한 가을 오후, 빗방울이 유리창을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바깥 하늘은 낮고 잿빛으로 물들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실히 드러냈다.

꽃집과 서점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안에서 나오미는 멍하니 커피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커피와 잘 섞이지 않는 소용돌이치는 크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을 많이 자지 못했다. 불안감이 마치 달갑지 않은 거주자처럼 가슴속으로 스며들어 무겁고 끊임없이 밀려왔다.

마케팅 회사에서의 업무는 점점 더 힘들어졌고, 해고가 임박하면서 모든 회의가 시련처럼 느껴졌다. 그러는 동안 개인 청구서가 쌓이고 있었고, 게다가 최근 어머니의 건강 악화까지 겹쳐 나오미는 걱정과 무력감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물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겉으로는 나오미가 평소처럼 정중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카페에 앉아 있던 그녀는 지갑에서 영수증과 낡은 펜을 뒤섞어 꺼냈다. 그리고 지나치게 깔끔한 필체로 자신에게 온 편지가 적힌 봉투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인 터너 부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나오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나쁜 소식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책을 열었다.

나오미에게,

네가 꿈을 좇아 떠나 있는 건 알지만, 꼭 한 가지 상기시켜 주고 싶었어. 네가 우리 반에 있을 때, 난 네 안에 불꽃이 튀는 걸 봤어. 재능뿐 아니라 친절함,

회복력, 그리고 용기까지. 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스스로를 의심할 때 격려해 줬지. 그게 내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말해준 적이 없었어.

인생이 항상 친절할 순 없고, 당신이 항상 강하다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마음을 짓누르지만, 따뜻한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도 그런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세상에는 당신의 빛이 필요합니다.

감사 합니다,

터너 부인

나오미는 그 편지를 세 번이나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편안해졌다.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답답한 방에 누군가 창문을 갠 것처럼 답답함이 덜했다. 그녀는 작게, 그리고 마지못해 입술을 살짝 내밀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테이블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아주 조금 느슨해졌다. 마치 너무 꽉 조였던 칼라가 마침내 풀린 것처럼. 단지 말뿐이 아니었다. 기억된다는 그 단순한 행위가 문제였다.

그날 오후, 나오미는 직장에서 특이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료 말라의 책상에 들른 것입니다. 말라는 요즘 들어 회의 중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등 내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오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상황이 좀 긴박한 건 알지만, 세심한 배려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말라는 눈을 크게 뜨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와... 고마워요. 정말 벅찬
기분이었어요."

나오미는 그 표정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다. "응. 나도."

그날, 나오미뿐만 아니라 그녀가 말을 건네는 모든 사람에게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터너 부인의 옛 속담이 그녀의 마음속에 맴돌며 조용한 주문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불안은 마음을 짓누르지만, 친절의 말은 마음을 밝게 합니다."*
나오미는 그 속담을 계속 이어가며 친절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걱정 앞에서 자신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